제6강 우리 민족미학의 핵심

(1교시)

3-9-81이라는 북방 샤머니즘 계열의 성수를 우주적 완전수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옛날에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신비적 부호다. 부호(符號)라는 것은 천부(天符)인데, 천은 숨어있는 질서이고 부는 드러난 질서다. 하느님 또는 우주의 숨어있는 기이한 질서가 숫자나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을 인간중심으로 볼 것 같으면 영부(靈符), 영혼의 부적이다. 영은 숨어있고 부는 드러나 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숫자로 드러난다. 3-9-81이 앞으로 우리가 찾는 생명학 또는 우주 생명학의 중요한 암시가 될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이미 삼분과 이분이 결합되어 있다고 이야기했고, 혼원지일기도 이야기 했다. 혼돈한 근원의 한 기운 즉 태극이다. 혼돈한 근원의 질서, 근원적인 혼돈, 그 나름의 질서. 무엇인가 원형을 찾아내야 된다. 바로 문학과 예술, 역사와 철학에서 찾아야 하며 미학적 사유과정을 통해서 원형에 접근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학적 사유라는 것이 감각적 관조 또는 형상적 사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관조라는 것이 영성(靈性)에 해당하는 말 아닌가? 그러나 미학에는 분명히 있다. 감각으로부터 관조에 이르는 길. 또 형상적 사유라고 했다. 형상이나 감각은 육체 또는 신체학에 속하는 것이다. 현대의 미학적 사유는 칸트가 말한 것처럼 무관심적 쾌락과 미감, 초탈해 있는 듯 한 황홀한 엑스타시(ecstasy)가 아니다. 엑스타시가 있다 하더라도 신체적 사유와 함께 간다.
요새 칸트의 유고가 새로 발견되었는데 웬일인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선험적 신체학에 가깝다고 하는데, 신체는 경험적인 것이지 선험적인 것이 아니다. 선험적인 것은 이성 아니면 영성이다. 그러니까 신체를 영적인 선험성, 초월성과 연관시키는 과정이라는 정도만 짐작할 뿐이다. 어쨌든 미학이라는 것은 신체적 접근, 감각적 활동을 통해서 태극궁궁, 혼원지일기와 같은 원형을 사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

사회에도 카오스와 코스모스가 있고 카오스와 코스모스 사이에 이중 교호결합이 있다. “사회에도 경락이 있습니다.” 경락은 침놓는 자리를 말한다. “소위 소외된 계급, 하층 민중을 경락계나 장기계의 원리로 사회에 적용시켰을 때, 경락계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전부 언더클래스, 즉 여자, 낙오자, 아직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청소년, 농민, 달동네 주민들… 또 그들 내부에서 출몰하는 무의식, 그림자, 욕구 불만, 스스로 이해 안 되는 욕망들, 이런 들끓는 온갖 것들이 경락계에 해당됩니다.” 사회도 그렇다는 이야기다. 반대로 장기계는 코스모스로서 무엇을 피력하느냐 하면 “공적 집단, 시장, 국가, 경찰, 군대, 대학, 기업체 엘리트들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카오스의 질서가 드러난 코스모스적 질서에 의해서 “가시화되고, 합법화되지 않을 때 터지는 것이 혁명입니다.”(『탈춤의 민족미학』, 115쪽)
주역 정괘(井卦) 뒤에 혁괘(革卦)가 있다. 정괘의 우물 정자는 아주 오래된 깊은 우물이다. 이 물 밑에 뭐가 있는지는 모른다. 진정한 정치가는 이 우물을 자주 들여다봐야 한다. 이 우물은 아랫동네, 아랫것들 사는 동네에 있다. 그 우물을 길어 올려서 햇빛에 드러내지 않아 썩어서 병이 생기는 것, 그것이 혁명이다. 혼돈의 질서는 질서의 햇빛 밑에 드러난 혼돈이다. 욕구불만, 살욕 등을 큰 밝은 햇빛 밑에 드러내서 합법화 시키고 공론화 해줄 때에

www.artnstudy.com

혁명이 안 터진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바로 원형과 미학적 사유, 3-9-81과의 관계, 3과 2와의 관계를 이제부터 따져나가야 한다.

여기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이 강의가 '흰 그늘의 미학을 찾아서'이기 때문에 미학적인 어떤 매듭이 지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도가, 불가, 유가가 함께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나름의 풍류 미학이 현대적 요구와 결합되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도가에서는 무현금(無弦琴)의 미학을 말한다. 줄이 없는 거문고. 이것은 사실 화담(花潭)과 같은 유학자들한테서도 나오는 말인데 도가 계통에서 수련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현금이 진리의 핵심이다. 줄이 없는데 소리는 난다는 건 어떤 경지인가.
오사카의 역사박물관 한 층은 전부 막사발이다. 반듯반듯하게 만든 것들은 전부 일본인들이 만든 건데, 중간 중간에 입이 삐뚤한 게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국보로 올라갔다고 한다. 바로 이 삐뚜렁한 주둥이가 무현금이다.
대음희성(大音希聲)이라고 하여 큰 음악은 소리가 듬성듬성하다. 보이는 것, 드러난 것이 싹 걷혀야 숨어있는 것이 그대로 보인다는 뜻이다. 또 대교무교(大巧無巧)라고 하여 큰 기교는 기교가 없다, 기교를 안 부린다고 한다.
이런 무현금의 미학은 없음, 털어버림, 서투르고 엉성하고 삐뚜렁함이다. 아무리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라도 이빨을 딱딱 맞추고 손을 쥐었다 놨다 하고 눈을 치켜떴다 내렸다 하면 옆에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미친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선도의 수련에서 나온 것이다. 공자나 중국 유학에는 그런 게 없다. 아무리 꼿꼿한 유생들도 술이 취하면 갓을 삐뚜렁하게 쓰고 말도 삐뚜렁하게 한다. 그게 멋이다.
그러면 갓 쓴 양반들의 유가적 미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역(易)의 미학, 즉 바뀜이다. 예를 들면 육효중괘(六爻中卦)에 주효(主爻)가 음이냐 양이냐에 따라서 전체 의미가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기운생동(氣運生動)이라 하여 작품과 사람에 뭔가가 꿈틀거린다는 것이다. 아무리 잘 그려도 기운생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늘보다 더 근원적이다. 중국 내지 동아시아의 기본적인 우주관은 생생화화(生生化化)다. 낳고 낳고 변화하고 변화한다. 꽃이 오늘 활짝 피었다가 내일은 지고 또 다른 꽃이 피었다가 다음날 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동아시아 각국에서 정치의 제일의(第一義), 첫 번째 뜻은 만물활기(萬物活氣)다. 인간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전부 변화시켜서 길러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교의 경우 옛 제왕들은 신하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앞 개울가가 시커먼 시궁창으로 변하면, 그것은 왕의 잘못이다. 또 저기 숲 속에서 이상한 나무가 하나 나왔다고 하면 옛날에는 그런 연리지(連理枝)를 그냥 놔두지 않았다고 한다. 왕이 신하의 부인을 빼앗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물이 흑탕물이 된다, 하늘에 무슨 징조가 있으면 삼촌을 해코지하려 한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일음일양(一陰一陽)이다.
변화의 기초수는 3이고 변화의 완성수는 9이다. 이것이 생명학의 세계다. 또 우주적 완성수는 81, 이것은 우주적 생명학의 세계다. 즉 3-9-81, 아주 쉽게는 1-3-5-7-9. 이렇게 나가는 혼돈의 질서에 기본을 둔 미학적 체계만이 풍류의 미학이 될 수 있고 온갖 생명을 접화군생할 수 있다. 다루어서 가까이에서 변화시키고 감화시키고 진화시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실하 교수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유교문화권에서 오색찬란한 무지개라는 말을

www.artnstudy.com

쓴다. 그러나 북방문화, 선도문화권에서는 아홉 빛깔 무지개라고 한다. 만주 북쪽이나 연길 같은 데에서도 아홉 빛깔이라고 한다. 또 아홉 개의 독에 담은 음식이라고 표현하면 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선도와 풍류의 근원이 어딘가? 북방문화는 3자, 9자 돌림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일만사천년전 마고성의 질서, 율려의 질서는 팔려사율, 8과 4로 나가느냐? 이것 아직 우리는 대답 못하고 있다. 이 둘이 합쳐진 경지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미학적 사유로 대답할 수는 있지만, 정말 확실한 대답은 이제부터 우리가 르네상스를 해야 할 수 있다.
즉 고대 르네상스 운동을 해야만 인류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식을 찾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민족은 고구려가 우리 민족들의 나라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전 아시아 민족들이 모두 출발해서 아시아의 대 고대문예부흥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전부 중국에게 당한다.

접화군생. "뭇 생명을 접해서 감화시킨다." 군생은 뭇 생명인데, 그 안에 무생물도 들어간다. 생물만 생명이 아니다. 생명이 없는 무기물도, 모든 일체 존재는 군생이고 중생이다.
옛날 예술가들은 돌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했다. 그만큼 생명을 살린다는 이야기다. 이 접화군생이 우리 민족 미학의 핵심사상이다.
미학적 논의, 또는 창조자와 작품, 작품과 관람자 사이에 미학적 원리는 무엇인가? 멕시코의 시인 옥타비오 빠스(Octavio Paz)는 현대시에서 아주 넓은 개척지를 열었고, 소위 유럽적인 미학에 동양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한 단계 높이 발전시켰다. 옥타비오 빠스의 시 세계는 아까 이야기한 도가, 유가, 선가, 즉 생명미학과 어떤 연관을 갖는가.
옥타비오 빠스는 이렇게 말한다. '이미지는 결코 이것 또는 저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미지는 이것과 동시에 저것을 말한다.' 그렇다-아니다, 아니다-그렇다. 이것은 저것이 아니고 저것은 이것이 아닌데, 이것은 저것이고 저것은 이것이라고 한다. '심지어 이것은 저것을 말한다고 주장한다. 이것, 이 세계, 이 현실이 저것, 저 너머, 저 피안, 다른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을 찾았던 것, 그것이 그의 시詩이다. 첫 번째 방식은 사회적 생산물로, 두 번째 방식은 역사적인 것을 뛰어넘는 창조물로, 그렇지만 진정으로 이것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시가 역사 속에서 육화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반복될 필요가 있다.'
이것과 저것의 문제. 예수가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라고 말한다. 비둘기와 뱀이 같이 튀어 나온다. 이것을 모순어법(oxymoron)이라고 한다.
또 기력(氣力)을 공부한 덴마크의 큰 귀족이자 노벨상을 받은 원자물리학자 닐스 보어(Niels Bohr)는 자기 가문의 문장을 태극기로 했다. 이는 모든 반대되는 것은 언제나 상호 보완적임을 보여준다.

(2교시)

유교와 북방문화, 선도, 유럽의 사상들이 결합되었을 때 미학적으로는 제3의 "신령한 리얼리즘 미학"에 도달할 수 있다. 리얼리즘에 유물론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리얼리즘, 즉 지구 중력권 안에서 사물의 일정한 질서와 또한 우주 자력 즉 약행력, 기행력, 전자기력, 중력, 이것을 다 인정하는 속에서부터, 이 네 개의 우주의 힘 안으로부터 '흰 그늘'이라고 부르는 어떤 보이지 않는, 종잡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섬찟섬찟한 혼(魂), 아니

www.artnstudy.com

면 평화, 진정으로 거룩한 아우라, 동양학에서는 무늬(文)라고 하는 숨어있는 미적 가치가 나올 수 있다. 리얼리즘 안에서 영웅, 신령, 신비주의적인 것, 초월적인 것이 뛰뛸 수 있다는 것, 뛰뛰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미학 또는 앞으로의 예술에서 제일목표다.
이렇게 해서 '흰 그늘'은 바로 '신령한 리얼리즘'을 말한다. 우리 몸은 중력권에서 떨어질 수 없다. 이 중력권 안에서부터 어떤 초월적인 '흰 빛'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늘'은 중력적 삶, 리얼리즘적이고, '흰'은 그 밑에 숨어서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는 것, 신비롭고 초월적인 것이다. 여기에 생명학과 우주생명학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신령한 리얼리즘 미학 혹은 흰 그늘의 미학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www.artnstudy.com